

## 손거울



이태봉  
중앙일보 NIE(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내 고향은 충남 당진이다. 당나라 당(唐)에 나루 진(津)자를 쓴다.

이름만 가지고 따지면 당나라와 무역을 하던 항구다. 그런데 북적거렸을 그 당시의 이름처럼 기억 속의 고향은 화려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지금은 그 때 영화를 재현하듯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며 시냇말로 뚝뚝만 말이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등지를 튼 것이 1979년이었다. 그러니 최소한 30년 전의 기억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겨울 청솔로 군불을 지피던 풍경이 초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코끝에는 푸른잎이 타다닥 타며 내는 매캐하지만 구수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이따금 쿵쿵거리면 냄새가 짙다.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부엌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허리를 편다. 저녁밥을 기다리며 안마당에서 재잘거리던 동생들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걸어나온다.

땅거미가 지고 아버지께서 땀감으로 나무를 지게 가득 해오시면 이내 저녁이 시작된다. 등잔불 밑에서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밥술을 뜨며 도란도란 식구들의 이야기꽃이 핀다. 보리밥에 반찬이라야 단골인 김장김치와 시래기국이 전부다.

셋째인 내가 좀 부지런을 떨면 보리밭 두둑에서 자란 냉이를 캐어 넣고 군불이 잦은 위에 올려 끓인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다. 댕새장이 서는 날 가마니를 짜서 읍내로 팔러 나간 아버지께서 큰맘 잡숫고 동태 서너마리나 돼지고기 한두근을 사오시면 그 때는 잔칫날이다. 아버지의 손에 신문지로 두른 정채 모를 뭉치가 매달려 있다면 랜드가 벌써부터 알아차리고 한달음에 논둑길로 마중나간다. 랜드





는 집에서 기르던 덩치 큰 개다. 영어를 처음 배운 뒤 새끼 많이 나오라고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잔치 뒤끝에는 꼭 음식찌꺼기가 남는 법. 동태가 시나 돼지고기국물은 맨날 누른밥을 먹어야 하는 랜드에겐 보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반길 수밖에.

횡재하는 경우도 있다. 산에 눈이 쌓이면 꿩들이 먹이를 찾아 양지바른 보리밭으로 내려온다.

네살 터울인 둘째형을 포함해 동네 청년들이 굴러들어온 고기를 그대로 놔둘리 없다. 곁에 조그맣게 구멍을 내 속을 모두 파낸 콩에 청산가리를 넣고 촛농을 떨어뜨려 구멍을 봉한다. 그 다음 보리밭에 군데군데 놔둔다. 그러면 허기에 지친 꿩들이 여지없이 그 콩을 주워 먹고 죽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아니다. 모이주머니에서 촛농이 녹으면서 서서히 독이 퍼진다. 꿩은 이기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로 차고 올라 날다가 어딘가에 곤두박질한다. 꿩을 찾아나선 동네 청년들이 허탕을 칠라치면 쟁싸게 뒤를 밟아 찾으면 주인이 된다. 그야말로 횡재가 아닐 수 없다.

산토끼가 다니는 길목을 봐뵈다가 울무를 놓아 운 좋게 잡으면 달달 볶아먹는다. 두어 마리만 걸러도 겨우내 든든하다. 밥찌꺼기나 바심 뒤끝에 남은 벼를 주워 먹으려고 안마당까지 원정을 감행한 참새들도 저녁나절 또는 아침나절의 간식거리다. 삼태기를 부지깥이로 떠받친 다음 그 안에 덮힐 만큼의 자리에 벳짚을 가져다 놓고 약간의 벼를 뿌려 참새들을 꼬인다. 삼태기를 지지하는 부지깥이 중

간엔 새끼줄이 연결돼 있다. 참새들이 모이를 찾기 위해 삼태기 밑에 깔아둔 짚을 헤칠쫘 쟁싸게 줄을 당기면 그 안에 갇힌다. 보통은 부엌에 몸을 숨긴 채다. 그러나 단번에 잡히는 법은 없다. 허탕을 몇 번 치다가 눈먼(?) 참새가 몇마리 걸러들면 또 우리들만의 잔치가 벌어진다. 바싹 마른 소나무가지를 툭툭 잘라 쌓고 불을 지핀 뒤 사그러들길 기다렸다가 참새를 엮으면 지글거리고 익는다. 물론 참새는 즉석에서 배를 갈라 소금으로 간을 한 상태다. 동생들과 조금씩 나눠 먹지만 입에 들어가면 눈이 흰해지고 하루쯤 기운이 펄펄 난다.

기나긴 겨울밤 군불을 때서 절절 끓다 못해 새가 망게 탄 방바닥이 식을 정도로 밤이 이슬해지면 출출하다. 잘생긴 놈들만 박을 타서 만든 바가지에 골라 담은 뒤 벌써부터 마루 한켠에 올려 놓았던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을 차례다. 냉장고가 따로 필요없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중간 기온에서 고구마는 얼듯말듯한 상태다. 이가 시릴 정도로 달고 시원하다. 아이스크림 맛이 이보다 더할 리 없다.

우리 세대의 먹거리는 주식부터 간식까지 초라할 정도로 보잘 것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해 원리를 깨우치고 나눠 먹는 인정과 절도가 있었다.

지금 우리네 식탁을 살펴 보자. 과연 남과 내 가정의 건강을 배려하고, 손끝맛이 배어 있는 음식들인지.

최소한 어디서 어떻게 음식의 재료가 생산되는지 식탁을 마주하고 도란도란 자녀들에게 원리를 깨우친다면 정신 건강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PPKK